

세션3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특별세션> 친환경 해양시대를 위한 성공 전략

성홍근 | 한국해양공학회 부회장

해양산업의 신시장(북극항로, SMR, MRO 등) 창출을 위한 해양산업의 노력

최근 북극항로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특히 동남권 국가 항만에 큰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로의 단축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주제와 관련지어 보자면, 북극항로에서는 HFO 사용에 의한 Black Carbon 문제와 함께 해양 유출시에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연료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친환경 연료와의 연결을 위해 필요한 브릿지 연료인 LNG, 그리고 친환경 연료로 평가받고 있는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전기추진 등에 대한 요소기술은 물론 병커링을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최근 울산항은 물론이고, 부산항만공사에서도 이를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울러서 쇄빙선, 쇄빙상선 등에 SMR 등 원자력 기반 기술 적용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미조선협력 관련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필요한 MRO분야도 동남권에서의 해양산업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오늘 포럼에 함께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서 해양산업의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